

#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

### 결혼식 붐물, 연말까지 피크타임 90% 예약 종료 영화관 관객 1년만에 2배 '코로나 전' 70% 회복 지역축제 대부분 예정대로·연말 호텔 예약 폭 차

광주지역의 웨딩홀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히 해제하고 '일상회복'을 선언하면서 결혼식을 미뤘던 커플들의 결혼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매주가 결혼의 달인 5월 같다"는 것이 웨딩홀 관계자의 말이다.

6일 광주시 동구 '웨딩의 거리'에 있는 드레스 전문점 문 앞 칠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약이 가득 찬 명단이 적혀있었다.

매장 안에는 결혼식을 앞둔 커플이 드레스를 살피고 있었다. 매장 직원은 "9월에만 200팀에 달하는 손님이 찾아왔다. 이번 주 예약도 마감됐다"고 말했다.

광주시 광산구의 한 대형 웨딩홀 관계자는 "올해는 주말 결혼식 예약이 모두 마감됐고 내년 연말까지 주말 피크타임(점심시간)에는 예약이 90% 이상 꽉 찼다"고 말했다. 서구에 있는 다른 대형 예식장도 올 연말까지 주말 피크타임은 예약률이 90%를 넘었다고 밝혔다.

예식장 관계자는 "거리두기 탓에 지난 2년간 미뤄왔던 결혼식이 하나 둘씩 진행되고 최근 결혼

까지 겹치면서 매 주가 5월 같다"면서 "지난 1일 토요일 하루 하루 수만 1만명 이상이고 결혼식 상담문의도 2-3배 늘어 예약부 직원들은 밀려드는 상담전화에 정신없는 상태"라고 웃어보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 주 날아오는 청첩장에 축의금이 부담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결혼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가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영화관을 찾는 광주지역 시민들도 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동안 광주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은 약 36만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18만명) 대비 2배 가량 증가했고, 2020년 같은 달(9만명)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9월과 비교해도 관람객(55만3000명) 수나 매출액이 70-80% 수준까지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5월 코로나 이후 첫 천만영화(범죄도시2)가 탄생하면서 영화산업을 회복될 징후를 보였다"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극장에서 취식도 가능해지는 등 방역지침 완화가 관람객 증가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코로나로 '울 스톱' 상태였던 지역 축제도 다시 열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남 주요 축제 116개 가운데 약 75%인 89개의 축제가 취소됐다. 올해 9월까지도 54개의 축제 중 절반인 26개가 취소됐지만 10월부터는 전남 주요 축제 43개 가운데 취소된 6개를 제외한 나머지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7일 열리는 '순천푸드 앤 아트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8일-16일), '목포항구축제'(14-16일),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10월 21일-11월 6일), '해남 미남축제'(11월 4-6일)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특히 장성 가을꽃축제는 코로나 유행으로 3년만에 개막

한다.

광주에도 13일부터 5일간 광주 '충장축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에는 세계 뮤지션들과 함께하는 버스커즈월드컵과 현지 요리사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세계음식문화페스티벌이 준비돼 있다.

광주시 동구는 올해 50만 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제추진단 관계자는 "해외 입국자 7일 의무격리가 해제되면서 20개국 이상에서 관계자를 초청했다. 코로나 이전보다 규모를 확대해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호텔업계도 손님 맛을 채비에 분주하다. 이번 달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0% 증가했다는 것이 광주시 서구의 유명호텔 관계자의 전언이다.

행사 인원 제한이 폐지되면서 300명대 행사도 열리고 있고, 객실 점유율도 70%를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서구 라마다호텔 관계자는 "올 상반기를 지나면서 최근 조금씩 매출이 늘고 있다. 연말에도 매출 증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상황을 낙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9월 대비 객실 점유율과 식음료 매출이 2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



5·18민주광장 앞에서 '뷰~티' 광주 지역 미용업 등 뷰티종사자들이 6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뷰티관광콘텐츠 펌투어'에 참가해 드레스를 입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동구 지역을 돌며 역사체험과 아로마테라피 등 뷰티 체험을 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학생 안전 담보 안된 현장실습 폐지 검토"

### 전남교육청

전남교육청이 지난해 발생한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를 계기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현장교육은 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직업계고 현장 실습은 폐지까지 검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선안은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장, 교육과정 정상화가 강화됐다.

우선 고교생 현장실습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주관 사전 현장실사와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정

위원회'에서 인정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야간근무와 같은 위험요소가 배제되고 학생과 교사가 동행하는 산업체 현장학습을 권고했다.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3학년 2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가 경과되는 11월 21일 이후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개선했으며 취업 전환은 졸업식 이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공기업, 부사관 등 고졸채용 전형의 경우 타시도 학생들과 경쟁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으며 학생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양질의 취업처를 확보하기 위해 전남도청 등 관련 기관과 상시 협력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1인 1총기' 대통령 지시에 권총 예산 26배 ↑

### 경찰청, 내년 살상력 높은 '38구경 리볼버' 구입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관 1인 1총기 소지' 검토를 지시한 뒤 경찰청이 권총 구입예산을 올해 1억 5000만원(정부 본예산)에서 내년 38억5000만원으로 무려 26배나 늘려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동안 경찰이 5대 강력범죄에 대응해 총기를 사용한 횟수는 15건에 불과하다.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엄격한 규정에 따라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돼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하지만 지난 7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신촌지구대 방면 간담회 자리에서 흉악범 대응 방안으로 '1 경찰관 1 총기 소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기존에 사용하던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구매할 계획이다.

일선 경찰관들은 38구경 권총의 경우 실탄 발사시 화력이 강해 사상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과 사상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 등으로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은 2016년부터 34억원을 투자해 스마트권총 개발을 완료했다.

스마트권총은 탄알이 플라스틱 재질이고 화력이 기존 권총의 10분의 1 수준이다. 범인이 총을 맞아도 사망할 가능성이 낮고 제압하기에는 충분한 화력이며 총기에 스마트 칩을 심어 권총 발사 시간·장소·각도 등을 자동 저장하는 기능도 탑재돼 있어 국내 현실에 맞는 한국형 권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경찰청이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대량 구매하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제 10회 '고려인의 날' 행사 16일 개최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고려인의 날' 행사가 오는 16일 열린다.

6일 광주고려인마을에 따르면 16일 오전 11시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흥범도공원(다모아어린이공원)에서 고려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3년만에 대면으로 열리고, 식전공연, 식사, 기념식, 축하공연 순으로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고려인 주민들로 구성된 어린이합창단과 청소년오케스트라 등의 축하 공연도 펼쳐지고, '고려

아리랑' 작곡가이자 고려인 3세로 지난해 작곡한 한야코브씨의 생전 사진과 악보 등이 전시되는 기획전도 열린다.

특히 식사에는 고려인 주민들이 직접 만든 우즈베키스탄 전통빵인 '리뽀슈카' 등이 포함된 도시락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은 2013년에 10월 셋째 주 일요일을 '고려인의 날'로 정한 뒤 매년 지역주민들과 고려인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천홍희 기자 strong@

## 쌀쌀한 한글날 연휴

### 광주·전남 9일 비·바람

한글날과 대체공휴일 연휴동안 광주·전남지역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9일 오후 한 때 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8일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지고 9일 오후에 비와 바람이 전망되고 있어 연휴기간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6일 예보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약초(새싹삼) 농장 답사와 함께하는

# 약초 대가 일일무료특강

산야초 약용식물 관리사 1급~3급까지 자격취득 안내

### 꼭 읽어보십시오.

**1,000만 만성질환 당노**(60대이상 성인 3명 중 1명 당노), **고혈압, 암, 치매, 중풍, 천식** 등 기타 각종 질환이 난무하는 시대에 90세이상 사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옛부터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불치병은 올바른 음식섭취와 약초를 권했지요. 또한, **면역력 증강 음식 섭취**가 최고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 현미섭취**"와 **약초(아재 및 한방차)** 섭취로 음식문화를 바꾸어 보십시오.

아울러 **약초자격(1급~3급) 취득**으로 "부(富)도" 이어가십시오. 그 방법으로 ① **산야초, 약용식물 관리사 자격 1급~3급**까지 자격 취득 안내와 ② **약초(새싹삼) 농장답사**를 함께 하며, ③ **직접 바로 도정한 현미쌀** 무료 식사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이 날 하루 뜻깊은 날을 맞아 보시기 바랍니다.

※ 출발시간 : 각 지역 마다 **오전 7시 00분** 출발

※ 출발장소 : 우측 일정 지역별 장소 참조 (관광버스 대기) 버스 앞에 "**약초농장답사**" 라고 써 있습니다.

※ 사전예약 : **010-4846-7397 / 010-4115-7397**

※ 단체 예약도 환영합니다.

※ 주 최 : 산야초, 약용식물 관리사자격개발연구원, 농업법인 산들마을

※ 우천시에도 정상 진행합니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농장알리기 일환으로 **가정필수품을 선물로 무료 증정**합니다.

< 지역별 출발 일정 >

지역명	광 주
날짜	10월 11일(화요일)
장소	광주역 광장 앞(광주북구)

  

지역명	순 천
날짜	10월 12일(수요일)
장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공영주차장 앞